

전남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유치 총력전

전남도가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기후주간 (Climate Week)’ 개최국 확정을 앞두고 중앙부처와 공조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기구 고위급 외교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수시가 9월 국내 개최지로 최종 선정된 이후, 정부·유엔기구와의 연쇄 접촉을 통해 대한민국 유치 명분과 전남 개최 필요성을 집중 설파하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주관으로 2021년부터 시작된 기후주간은 전 세계 198개국 협약 당사국과 국제기구·NGO 등 수천 명이 참여하는

전남방문단, 국제환경기구 최고위급 관계자 만나 협조 당부

대한민국 개최 요청 도지사 친서, 사이먼 스티엘 사무총장 전달

국제 환경 행사다. 당사국총회 (COP) 공식의제 설정을 위한 사전 논의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남도는 지난 9월 기후부에서 실시한 전국 단위 개최 도시 공모에서 경기, 충북, 경남, 제주를 제치고 전남 (여수) 선정을 이끌어낸 후, 대한민국 유치 확정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위해 기후부·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부·여수시 등과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COP30에 참가해 전남의 탄소중립 정책과 2026년 기후주간의 전남 여수 개최 필요성을 강조하는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전남의 의지와 열망을 널리 알렸다.

또한 기후주간의 대한민국 개최를 요청

하는 전남도지사의 친서를 사이먼 스티엘 (Simon Stiell)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지난 1~2일 박철주 전남도 국제관계대사를 단장으로 한 전남방문단은 독일 본에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이클레이 (ICLEI) 세계본부 등을 방문해 노우라 할라지 (Noura Hamladi)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부총장, 지노 반 베긴 (Gino Van Begin) 이클레이 사무총장 등 국제환경기구 최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전남의 탄소중립정책 소개와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의 대한민국 유치 당위성

을 적극 피력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노우라 할라지 사무부총장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그동안 대한민국과 매우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했고, 기후주간 개최지로서 전남도는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전남 방문단이 여기까지 찾아와 설득력 있고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개최 국가 결정이 12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실용성과 품격을 갖춘 회의장, 의미와 내실 있는 연계 행사와 프로그램,

편리하고 안전한 숙박·교통 등 차질 없는 행사를 위한 사전 준비에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의 대한민국 유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주도하는 글로벌리더 국가 도약의 계기가 됨은 물론, 그동안 COP 유치를 위해 노력한 전남의 열망과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유치 확정을 위해 기후부·여수시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제12회 남구민 나눔의 날’ 4일 오후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희망2026나눔 캠페인 ‘제12회 남구민 나눔의 날’ 행사에 참석한 김병내 남구청장과 주민들이 릴레이 기부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시, 시민 참여 ‘기후위기 대응’ 해법 모색

시민총회...시민 300명 사회적 속의 통해 정책 발굴

강기정 시장 “행정·공공 중심서 시민 중심으로 전환”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총회를 열어 시민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했다.

광주시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 광주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빛고을 기후위기 대응 시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민총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행정 중심의 대응을 넘어 시민이 주체적으로 대응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고 우수 정책을 발굴

해 실행하고자 마련됐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성별·계층·직업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아우르는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그동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소년·여성·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해 시민 주도형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이다.

시민총회에는 강기정 시장, 윤제정 광주기후에너지지흥위원장, 최지현 시의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시민을 비롯해 청소년, 대학생, 에너지전환미를 주민, 넷제로 프렌즈, 사회적경제기업, 종교계, 자원봉사자, 광주대자보 실천단 등 다양한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 광주의 기후위기 정책을 논의했다.

‘기후위기, 거대한 가족에서 담대한 전환으로’를 주제로 한 특강을 한 조천호 전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광주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 작은 실천과 행동이 가장 힘이 될 수 있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광주시민이

바라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의제 및 사업을 발굴했다. 현장에서 실시간 투표를 통해 정책실행 우선순위 및 우수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총회에서 나온 정책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에서 최초로 개최된 기후위기 대응 시민총회를 통해 행정·공공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이 시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 속의를 통해 도출된 기후위기 대응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40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

광주, 오늘 나주 동신대에서 개최

광주시와 전남도는 5일 전남 나주시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 동강홀에서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미래차국가산단이 국가 전략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주시와 광주 인근 전남 5개 시·군 (나주·담양·장성·화순·함평)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서남권 대도시권·광역경제권·광역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 계획이다. 계획에는 경제지역 육성, 핵심산업 회랑 구축, 광역교통 연계 효율화 등이 주요 전략으로 담길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진월동 서문대로~봉선동 대화아파트 터널 개설

정진욱 의원, 설계비 확보...“백운광장 교통혼잡 해소”

광주 교통의 중심으로 대표적인 상습 정체구간인 남구 백운광장 일대의 교통혼잡이 해소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진욱 국회의원 (광주 동남갑)은 4일 “국회에서 처리된 2026년도 국비 예산 가운데 남구 진월동 서문대로~봉선동 대화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의 설계비 5억원

을 신규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구 진월동 서문대로~봉선동 대화아파트간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 774억원 (국비 232, 시비 542)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길이 0.76km (터널 495m 포함)의 4차선 도로이다.

정 의원은 “이 도로 개설은 특히 진월동

및 봉선동, 주월동, 효천지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현재 봉선동에서 백운광장을 통해 나주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데만 출퇴근 시간 기준 최소 20분 이상 소요되는 만성적인 교통 정체구간이다”며 “지난 2019년 광주시에서 ‘국도보조사업’으로 신청하고 2021년 7월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해 개선사업’으로 선정됐지만, 물가 상승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으로 중단된 상태였는데 이번

에 설계비 반영을 통해 다시 추진해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해 개선사업’으로 선정되면, 내년 1~2월 기

본계획 고시를 거쳐 3월경 이변에 반영된 5억원으로 본격적인 설계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진욱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남구와 광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단초가 마련됐다”며 “남구의 핵심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잇는 교통체계가 갖춰져 지역발전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 이번 사업이 예정대로 마무리 돼 교통망이 확충되면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 활성화와 남구 내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공사과정에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광주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나도록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대통령, 손정의 만나 AI·반도체 등 협력 논의

올트먼·젠슨 황 접견 이어 ‘AI3대 강국 목표’ 행보 지속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 5일 손정의의 소프트웨어그룹 회장과 만난다.

대통령실은 4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이온 회장과 인공지능 (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경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배석한다.

손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웨어는 미국에서 오픈AI·오라클과 함께 대규모 AI 기



반 시설을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AI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AI3대 강국’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오픈AI의 샘 올트먼,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 (CEO)들과 잇따라 만나며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영록 지사 “전남 5·18기념공간 조성 환영”

내년 국비 확보 환영...오월정신 교육장 마련

김영록 전남도지사 (사진)는 4일 ‘전남도 5·18기념공간 조성’ 사업이 2026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오월 정신 계승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국비 확보와 관련 “무도한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전남 전역에서 터져 나왔던 도민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고, 민주화 성지 전남의 위상을 드높일 이 뜻깊은 성취를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목포역에 항쟁본부를 설치해 5·18 최후의 항전을 이끈 것은 전남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역사”라고 평가했다.

이번 국비 확보로 전남도는 목포역 인근에 ‘전남 5·18 기념공간’을 조성, 전남 전역에 흩어져 있던 5·18 기록을



한데 모으고, 치열했던 항쟁과 숭고한 연대의 서사를 오롯이 담아낼 계획이다.

또한 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치

유 공간이자, 미래 세대가 전남의 민주화 역사와 오월 정신을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가꿀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오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다시는 국가 권력이 민주주의를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며 “빛의 혁명을 승리로 이끌었던 전남의 오월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 증거로 길이 남도록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환 기자 holbu@

신정훈 행안위원장, 8일 전남지사 출마 선언

“전남에서 국민주권정부 실현...도민주권시대 열겠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사진)이 오는 8일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출마선언식은 8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다.

신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주권정부’를 전남에서 실현해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민주권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출발점을 전남에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다짐을 도민들께 가장 먼저 보고드리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 다”며 “정치가 시작된 전남도의회에서 다시 초심으로 서겠다. 출마선언식에서 더 구체적인 비전과 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선언식에서는 그동안의 정치 경력과



전남도정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언식 직후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 질의에 답한다.

신정훈 위원장은 전남도의원 (재선)과 나주시장 (재선)을 지난 3선 국회의원으로, 나주 혁신도시와 한전공대 유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올해 인공태양연구소의 전남 유치를 성사시키며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했고, 용혜인 의원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대표발의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이끌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